

‘내홍’ 광주비엔날레 재단 집중 점검

시, 보복성 인사·사조직화 등 ‘갑질’·근무 태만 등 조사 “임기 상관없이 적절한 조치”... 후임 대표 선출 절차 착수

광주시가 내분사태를 보이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일단 재단대표의 보복성 인사와 사조직화는 물론 일부 직원의 근무 태만, 불성실한 계약업무에 따른 재단 손실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사안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7일 “문화관광체육부, 시 감사위원회의 문화관광체육실이 참여해 종합적으로 비엔날레 재단을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재단 특성상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광주시의) 직접 감사권한 등이 없는 탓에 문화관광체육부의 지도 점검 권한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추후 재단 관리 권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조 부시장을 반장으로 8명 규모의 조사반을 구성하고, 시 보조사업 등 업무 전반과 노조 대표 및 직원 등이 상호 제기한 부당 사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노조 등은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재단대표의 보복성 인사, 해외 행사 준비 인력의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대표는 사조직화 논란 등을 빚고 있는 한국-러시아 5·18 관련 행사에 대해선 시와 협의를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해외행사도 현장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히려 일부 직원의 근무시간 중 학위 취득 및 대학출강 행위, 불성실한 해외작가 작품 계약 업무 등 각종 근무태만 행위 등이 더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양측의 주장 가운데 노조측이 강조하는 재단 대표의 갑질 행위에 대해선 노동청 조사가 시작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부시장은 “대표에 대한 갑질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노조측 주장이 대표는 부정하고 있다”며

“노조에서는 감사를 요구했으나 비엔날레 재단은 시 출연 기관이 아닌 탓에 1차적으로 내부적 해결을 요청했으며, 결국 문제부의 권한을 활용해 지도 감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특히 “이번 점검에서 부당한 지시와 직원의 기강 해이 등이 드러날 경우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대표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부시장은 “대표임기와 상관 없이 갑질 의혹 등을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신임 대표 선임과 관련해서 “이번 주중으로 김 대표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 세계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3년만에 제13회 광주비엔날레(4월 1일~5월 9일)를 개최했지만, 전시기간 부당해고와 인사권 남용,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외적 망신을 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서울 도봉구와 온라인 장터 운영

전국 14개 지자체 참여 농축수산물 등 직거래로

전남 농어업인과 서울 도봉구민의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도가 도봉구청과 함께 온라인장터를 운영한다.

서울시 도봉구는 구청 누리집(www.dobong.go.kr)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추천한 농축수산물 온라인몰을 통합한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흥가리비, 사과, 양파즙, 버섯, 명이, 곰취, 돌미역 등 전국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다.

온라인 직거래장터에는 현재까지 전국 14개 지자체가 참가하고 있다. 전남에선 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jmall.kr)’와 나주 ‘오색마을(www.fivecolor.co.kr)’, 담양 ‘담양장터(damyangmk.kr)’, 보성 ‘보성몰(mall.boseong.go.kr)’, 화순 ‘화순몰마나리(ehwm.com)’ 등 6개 온라인몰이 입점했다.

입점 대상은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 농어가 중 해당 지자체가 보증하고 추천한 농어가, 우수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농어가,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 중인 농어가 또는 지자체다. 입점을 바라면 소재지 시군 농축수산물 유통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온라인 직거래장터로 도봉구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 농축수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도내 농어가의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며 “다양한 농축수산물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 판매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인기

1년간 실습·종자돈 마련 기회 등 제공... 경쟁률 2.5대 1

전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이 농촌 정착을 바라는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사업’ 교육생 모집 결과 52명 모집에 132명이 지원, 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사업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이 스마트팜에 취·창업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 관리, 경영·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 실습까지 모든 과정을 20개월간 교육한다.

주요 인기 요인은 스마트팜혁신밸리 경영형 온실에서 1년간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 과정 실습할

수 있고, 교육 수료 후 점당 시설을 갖춘 임대형 온실에서 3년간 영농하며 창업에 필요한 종자돈 마련 기회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신청 인원의 81%가 농업 이외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스마트팜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도 전남 청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심사에 오는 7월 말 52명명을 최종 선발하고, 8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월부터 교육한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스마트팜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화한 교육 운영으로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미중일 등 기업과 ‘온택트’ 투자 상담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온택트(Ontact)’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자동차산업,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K-뉴딜 연계 AI·자동차·에너지산업 등 3개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해외 주요 전시회, 행사와 연계해 외국 기업들과 일대일 화상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한중 미래 전기차 포럼’에서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업 설명회(IR)와 상담회가 진행된다. 중국 미래차 관련 주요 기관과 기업 50여곳이 참가하며 5개 기업과 상담이 예정됐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 워싱턴에서 14~18일 열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광주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8개 기업과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6~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K-뉴딜 연계 행사에서도 현재 44개 외국 기업, 70여개 국내 기업이 투자 상담을 신청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이지만 늦은 만큼 더 역동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인의 마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 김영록 전남지사,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 이동진 진도군수,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진도군 진도읍 5일 시장에서 2021년도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 여행업체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논의

전남도가 코로나19 대응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분야 ‘소·공·현·담(소통하고 공감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자)’ 일환으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난 7일에 개최했다. 지난 5월 21일 문화관광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에 이어 이날 간담회는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와의 대상으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광 분야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여행사 대표들과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데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전 준비 사항과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방향 등 포스트 코로나 관광책

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설, 하반기 관광 분야 신규 사업 출시 등 맞춤형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관광 분야 소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중히 귀담아듣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광정책을 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든지 국민신문고 제안이나 유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주면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영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